

“창조도시 광주 위해 심없이 달려 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에 최선을”

“친환경 먹거리의 메카 자리잡아 퇴임 후에도 호남인 위해 역할할 것”

강운태 광주시장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말처럼, 민선 5기 3년째인 지난 1년간은 광주시가 목은 혼란과 갈등을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 핵심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거나 진행되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서 광주시정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향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일 중독’이라고 할 만큼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지난 27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 굾직한 현안과 사업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한 해였다. 지난 1년간을 평가한다면.

▲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은 ‘시민의 행복’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좌



민주·인권도시 자리잡고 일자리·수출증가 큰 성취 시민들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

우명 삼아 창조도시 광주를 향해 심없이 달려온 역동적인 시간이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그동안의 노력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보람찬 한 해였다. 시민들이 엄청난 자산과 가치를 지닌 ‘광주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한한 도약과 발전의 가능성을 거듭 확인한 시기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민주·인권도시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수출증가율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풍요로움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 현 시점에서 광주시가 풀어야 할 현안과 과제를 든다면.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초우기에 들어갔다. 오는 7월 19일 유치가 성사된다면 광주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것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 민주·인권도시인 광주가 한반도의 평화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과의 관계가 결코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와 함께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UN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주고 있는 만큼 단일팀 구성이 성사되면 광주와 정부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사업도 광주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 광주 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

▲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제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가는 느낌이다. 대량경 인사는 말뿐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두고 봐야 알겠지만 광주에 대한 예산배정도 현재로서는 냉랭한 분위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직까지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왜곡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무척 서운한 심경이다.

하지만, 아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주에서도 새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할 생각이다.

- 민선 5기가 이제 1년이 남았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 우선은,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과 관련된 새로운 대형 사업도 서너 가지 준비되고 있지만, 남은 기

간 동안엔 특히 시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려 한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참여와 소통’에 초점을 맞춰 ‘작은 민주주의’ 또는 ‘생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한다. 작은 도시관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박준영 전남지사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민선 5기 초반 3년이지만 3선 단체장으로서 9년간 도정을 이끌어 왔고 1년후면 퇴임을 앞두고 있는 탓이라.

박준영의 민선 5기는 전남을 친환경 농수축산의 메카로 만들었고 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 등 국제대회를 통해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대선후보로 출마해 나름의 성과를 올리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입지도 다졌다.

- 민선 5기를 포함해 그동안 해온 일 가운데 3대 성과를 꼽는다면.

▲ 첫 손에 꼽고싶은 것은 친환경 농업에서 출발해 이제는 수산과 축산으로까지 넓힌 안전한 먹거리 정책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가는 상황에서 친환경 농업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남을 먹여살릴 아이টেempo로 생각했다. 이제는 친환경하면 축산과 수산분야까지 ‘전남이 최고’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생물산업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유치로 인구 감소폭을 줄인 것도 성과라고 본다. 지난해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해 남도의 바다를 다시보게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국제대회로 전남의 브랜드 가치



여수엑스포·순천만 정원박람회로 브랜드가치 높여 남은 1년도 인기보다 먼 미래 보고 도정 펼치겠다

를 높인 것도 인정받았으면 한다.

- 남은 1년 동안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도정에 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본적 없다. 가령 ‘솔라시도(J 프로젝트)’는 정부가 땅을 주지 않아 7년만에 시작되는데 인기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 호남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과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를 전망해달라.

▲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는 현재 유보돼 있다. 이유는 민주당이 여러차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도 개혁을 추구하던 민주당이 너무 좌 편향으로 가는 바람에 안철수씨가 중도를 파고들었다. 과거처럼 잘하든 못하든 찍어주던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의 시대는 갔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앞으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만약 출범한다면)이 경쟁체제로 갈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새 지도부아래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현명한 호남인들은 양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보고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

-후임 전남지사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하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계승해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

▲ 무엇보다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미래비전이 있어야 큰 틀에서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결단력도 갖춰야 한다. 이런 저런 다양한 요구속에 도민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한다. 공정한 의식도 중요하데 인사와 예산 배분에 있어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퇴임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많다. 중앙정치 무대에 서는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중앙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 신문에 들어갈때 논설위원이 꿈이었다. 하지만 기자생활 8년만에 해직됐다가 복직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공부하고 싶었는데 청와대 가고 또 도지사하게 되고 내 계획대로 산 것은 8년도 안된다. 앞으로도 내 계획대로 안될수 도 있겠지만 이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자연인 박준영으로 돌아가고 싶다.

박 지사는 “민주당을 그렇게 사랑했고, 민주당 이념으로 지사를 세번이나 하게 됐다”면서 “호남과 호남인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케이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7월호
6월 27일 발매

자연과 문화로 힐링
크라우드 펀딩 희망을 본다

커버스토리
올 여름 힐링이 필요한 당신
걷기, 명상, 문화충전 어때요?
제주올레길, 광주전남 치유의 길,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생생한 체험의 현장과 활용 정보 수록

기획 특집
티끌모아 예술 투자
크라우드 펀딩에서 희망을 본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와 가능성 진단
착한 자본이 완성한 소록도 변화 프로젝트, 영화 26년

스페셜 인터뷰
치유의 길, 희망 개척한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올레길 뒤편 사연과 길에서 배운 삶의 의미

마주앉은 책과 삶
사진작가 배병우
세계가 감탄한 빛그림 '소나무' 치밀한 작가정신을 만나다

이달의 아티스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이다”

글로벌 아트
떠오르는 미술시장, 홍콩을 가다
아트바젤 홍콩에서 전망하는 아시아 미술

여행작가 노중훈과 떠나는 '우리 땅 속 여행' 역사, 자연, 사람, 사할 끝없는 해남의 매력
문화 동행, 편린 클럽 자부심을 연주하는 정음문화원 수제천 연주단
美로 味로
극성 국내 최대 간헐미술관, 전라남도 육과미술관을 가다

행복한 컬렉터
30년 동안 옛 책 10만여 점 수집해 온 화봉문고 '여승구' 대표의 각별한 고서 사랑

스타 데이트
광주출신 '국민 첫사랑' 수지와 첫 데이트
“내년에 스무살, 하고 싶은 것 많아요”